

‘유치원 3법’ 통과, 사립유치원 법인화·운영위 상설화 해야

교육감협, “유치원도 ‘학교’, 학교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법인 유치원·개인 유치원 간 학교급식법 차별 적용은 문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이하 ‘협의회’)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에 대해 환영 보도자료를 냈다.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특히, 시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

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 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관할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 급식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 시설의 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

를 확립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된 점도 매우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같은 법령 행위인데도 법인 유치원과 개인 유치원(형평 적용 안됨) 법률 적용이 다른 것을 지적하며, 형평의 형편성을 갖출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학교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사립학교 포함)를 심의기구화 할 것도

강하게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은 2018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확대해 왔다.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회계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해 왔고, 국공립유치원 설치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처음학교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을 시행하여 모든 아이들의 유아교육 학습권을 보호해 왔다.

따라서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에듀파인을 포함한 유아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은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김승환 회장은, “유치원도 업연한 ‘학교’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임을 분명히 하면서, “교

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영어수업, 스마트하게 진화하다

2020 중등영어교사 단기 직무연수 시작

전남국제교육원에서 중등 영어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첫 연수인 ‘중등영어교사 단기 직무 연수 1기’를 지난 13일부터 17일 까지 진행한다.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중등영어교사들의 영어수업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중·고등학교 영어수업에 특화된 내용들을 강의 및 실습,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되며, 2기 연수는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과정은 최근에 자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교실수업개선을 핵심으로 영어교사들이 수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목포정명여고 김효미 교사의 ‘비판

적 문해를 활용한 영어수업’, 인천 진신과학고 오정은 교사의 ‘영어과 과정중심평가 방법’, 대구 심인중 정성윤 교사의 ‘영어교사 수업 역량상 마이크로티칭’, 그리고 국제교육원 소속 원어민 강사들의 교수법 등이다.

연수에 참여한 순천왕의중학교 나윤정 교사는 “실제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유익했다”며 “영어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형성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남국제교육원은 중등영어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하여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허성은 기자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초·중등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능’ 연수

교사대상으로 실습 위주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내 광주 SW교육지원센터에서 13~1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직무연수는 광주시교육청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등 핵심 개념을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활용해 실습하는 내용으로 구성됐



다.

연수를 진행한 송은정((주)클래스팅) 데이터분석 매니저는 “이번 직무연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분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습으로 구성됐다”며 “직무연수의

목표는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핵심역량인 컴퓨팅 사고력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이미라 원장은 “인공지능 및 SW교육 등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관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들이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 교원 및 교육전문직들의 수업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신안 큰바위얼굴 교육 2020’ 설명회

신안교육청은 지난 13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교감, 교육과정 담당교사,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 큰바위얼굴 교육 2020’ 설명회를 가졌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장하기를 바라며, 2020년도 교육 트렌드를 ‘행복한 섭드리 꿈 배움터 2020, 신안 큰바위 얼굴 교육’으로 명명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되도록, 모든 아이들이 존중 받으며 꿈을 갖고, 행복한 삶을 개척하는 교육, 창의적이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서 미래사회에 당당한 구성원이 되는 교육, 교육공동체의 상생과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신안교육’을 지향점으로 제시하였다.

김재홍 교육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교육지원청은 주민 참여 교육행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목포공공도서관, 2020년 겨울독서교실 개강식 개최



목포공공도서관은 지난 14일 중학교 1학년, 예비 중1(초6)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독서교실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겨울독서교실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도서관에서 만나는 영화·영화를 만드는 우리들’이라는 주제로 운영된다.

‘봄봄’,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 3권의 주제 도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시나리오 쓰기부터 영상 편집까지 책을 기반으로 어떠한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 다양한 강의를 마련하였다.

강의내용은 ▲처음 알았네 우리

동네 독립영화 ▲함께 만들어요 시나리오 구상 ▲두근두근 영화제작 ▲오밀조밀 영화영상편집 ▲신기한 영화 특수분장 ▲콩닥콩닥 영화 발표식 ▲영화토론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겨울독서교실에 참가한 학생은 “방학 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영화를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무척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공공도서관 관계자는 “겨울독서교실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